

축산관측

— 축협중앙회 조사부 —

산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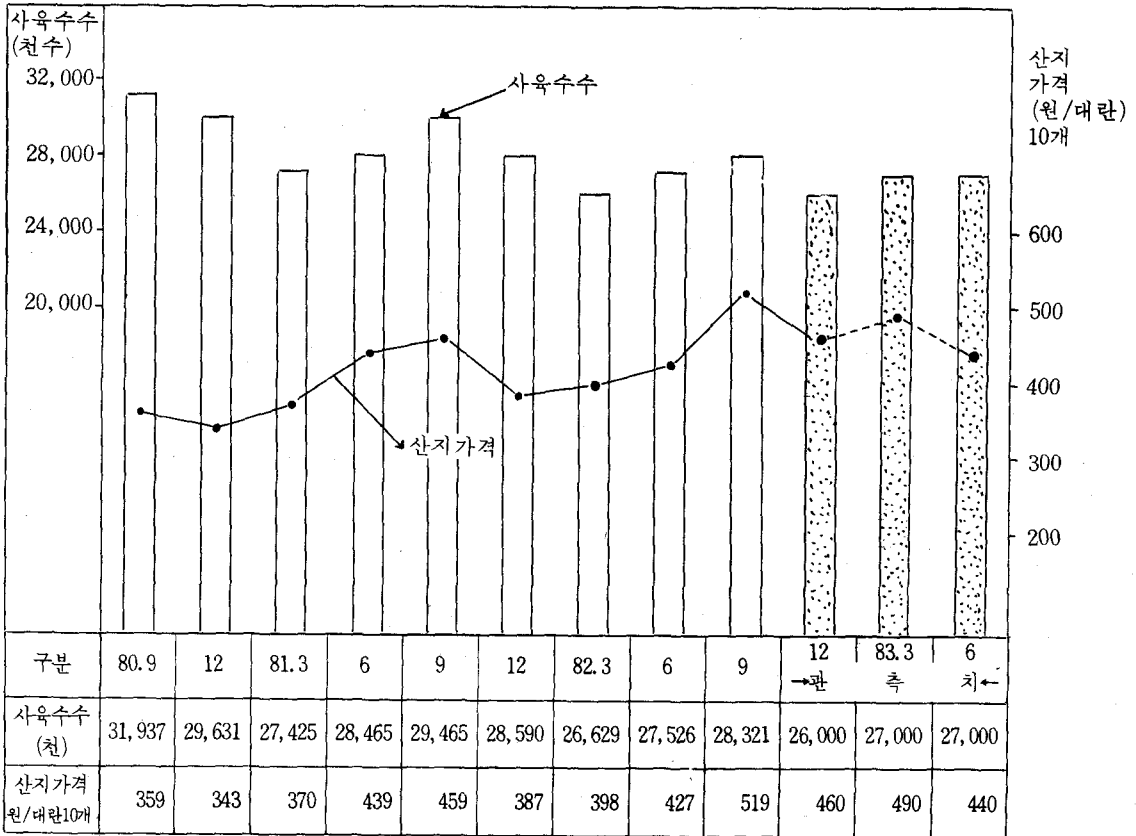
■ 사육전망

금년 9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28,321천수로 전년 동기대비로는 3.9%가 낮은 수준이지만 금

년 6월대비 2.9%, 3월대비 6.4%가 각각 증가된 것이다.

이처럼 9월에 사육수수가 증가된 것은 오래 동안 지속되어온 채란업의 불황이 금년 5월 이후 회복세를 보인데 힘입어 내년 봄철이후 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초생추 입식이 증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란계 사육수수와 가격전망



육 계

그러나 금년 12월 사육수수는 겨울철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입추량을 감소하고 노계를 도태시킬 것으로 보아 9월 수수보다 8.2% 정도가 감소된 26,000천수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년 3~6월에는 가을철과 추석명절의 수요에 대비하여 봄에 초생추 입식을 늘릴 것으로 보아 금년말 수준보다 3.8%정도 증가한 27,000천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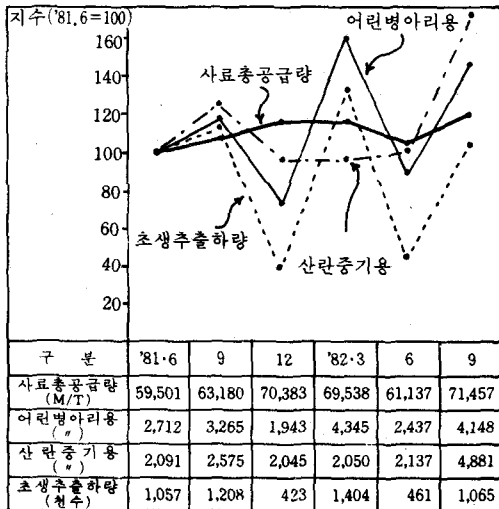
■ 수급 및 가격전망

금년봄 전염성 후두기관염의 발생과 가격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사육수수의 감소로 5~7월에 계란 가격이 회복세를 보인 이후 8월부터는 오히려 생산비를 웃도는 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후연말 연초를 전후한 겨울철에는 짐장철과 방학기의 수요 감소로 다시 하락세가 예상되나 생산비수준(436원/대란10개)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3~5월은 행락철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금년과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후 6~7월은 비수기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햄, 쏘세지 등 육가공품이 개발보급되어 계란에 대체 소비됨에 따라 계란의 수요는 공급능력에 비하여 정체돼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란계농가는 모처럼 회복된 계란가격 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합리적 경영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산란계수수 관련요인 변동지수



■ 사육전망

계절식품이라 할 수 있는 육계는 금년 6월에 26,437천수로 전년동기대비 19%의 높은 증가를 보여 예년보다 훨씬 많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9월의 육계사육수수가 많았던 것은 10월초 추석 수요기에 대비한 현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년 12월의 사육수수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14,000천수 수준으로 예상되며 내년 3월 이후 6월까지의 봄 소풍 및 여름철 성수기를 겨냥한 육계농가들의 입추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 3월에는 17,000천수, 6월에는 24,500천수 수준이 각각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급 및 가격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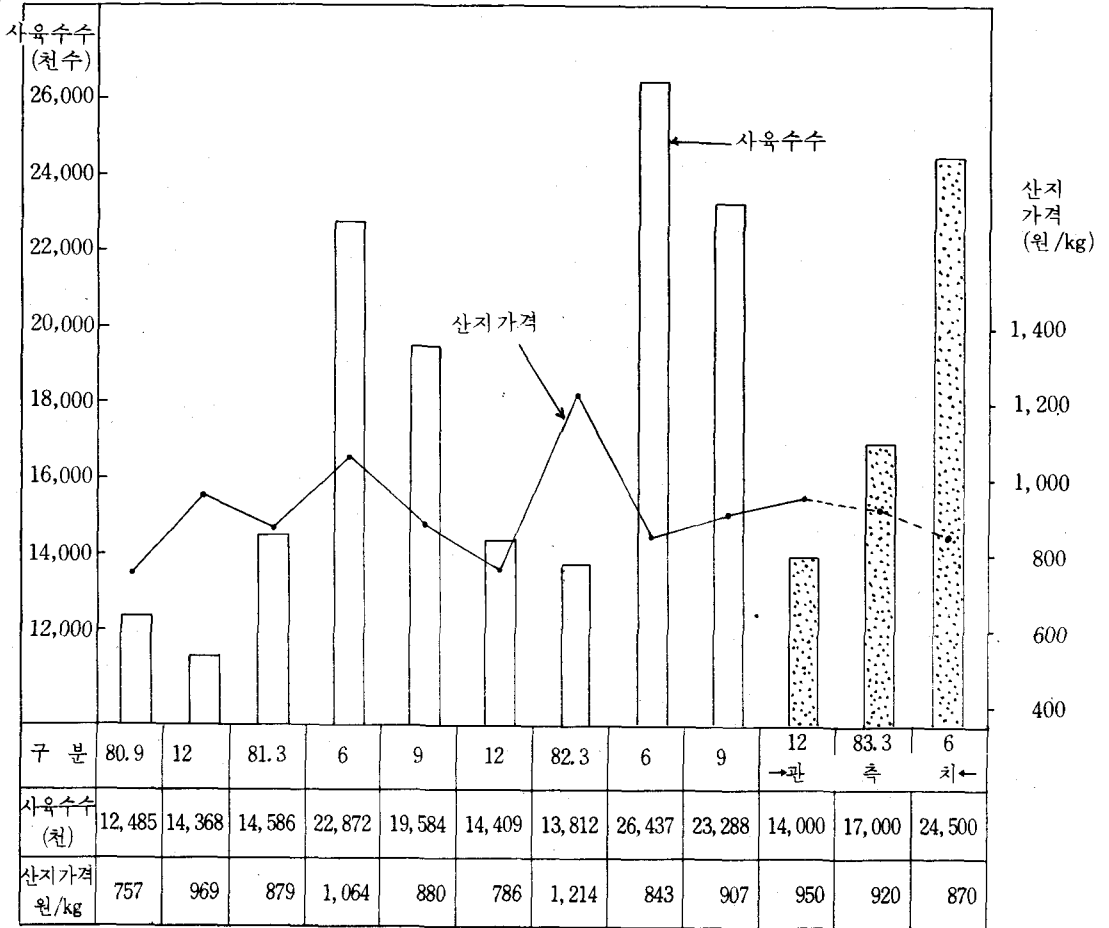
연도중 최 성수기인 여름철 육계가격은 사육수수 과다로 인한 출하물량의 증가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생산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9·10월에도 가격은 여전히 사육수수의 과다로 생산비(896원/kg)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말에는 10~11월에 들어 사육농가들이 후두기관염예방을 위한 사육수수 감소로 가격은 약한 회복세가 예상되며, 내년 1~2월에도 겨울철 연료비 감소를 위한 사육수수 감소에 힘입어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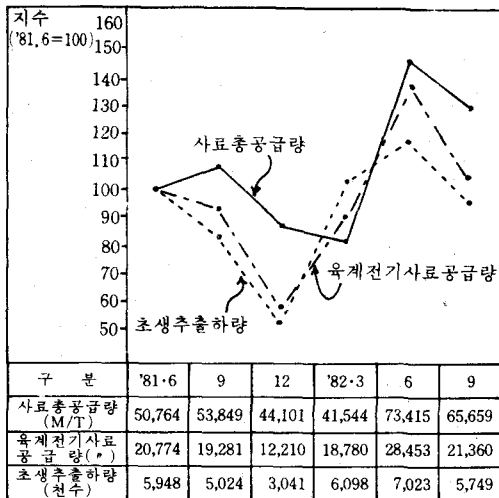
3~6월에는 봄철 수요기이지만 사육수수가 증가하여 공급물량이 과다할 것으로 보아 다시 약한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육계의 계절적인 수요에 비추어 사육농가들의 현명한 경영합리화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된다.

○육계 사육수수와 가격전망



○육계수수 관련요인 변동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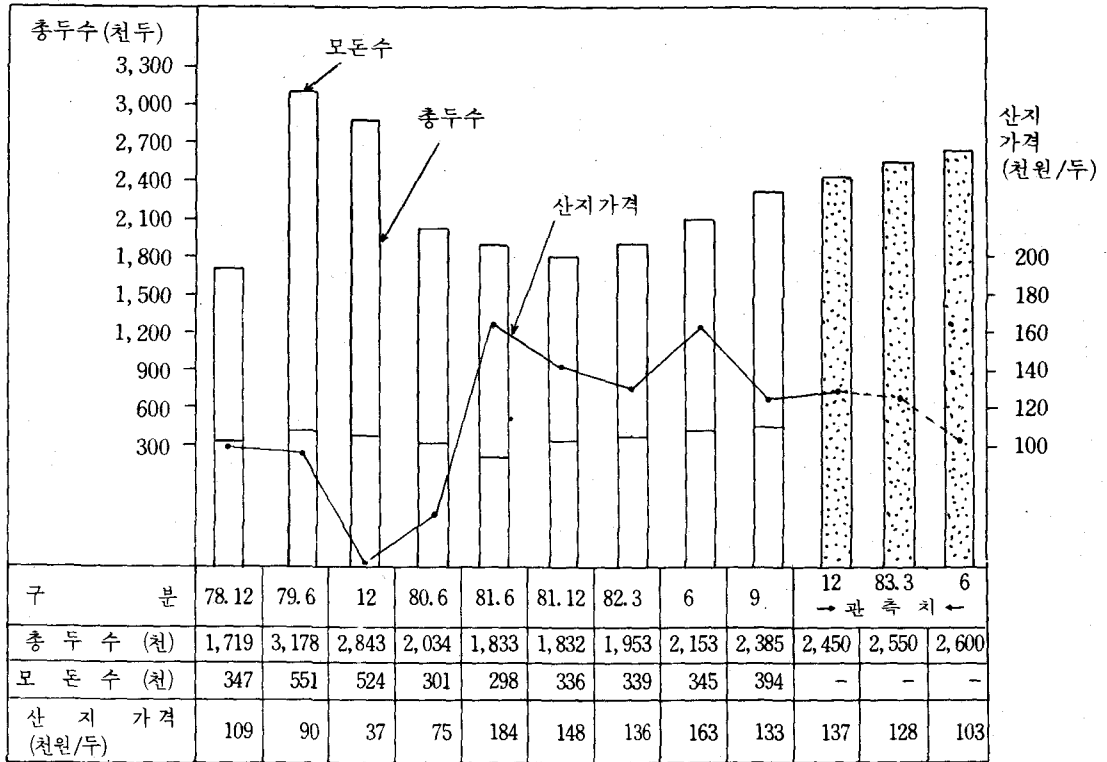
돼지

■ 사육 전망

작년말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돼지사육 두수는 금년 9월에 2,385천두로 3개월전인 6월에 비하여 10.8%의 증가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금년 12월에는 2,450천두, 내년 3월에는 2,550천두, 그리고 6월에는 2,600천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돼지 사육두수가 당분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모든수가 금년 3월대비 6월에는 불과 1.8% 증가한데 비하여

○돼지 사육두수와 가격전망



9월에는 394천두로 6월대비 14.2%의 높은 증가를 보였는데 이와같은 모돈수는 79년 불황 직전인 78년말의 모돈수 347천두 수준을 이미 넘어섰으며 또한 양돈배합사로 공급량면에서 봐도 금년 9월에 117천M/T으로 불황기인 79년 6월 대비 12.8%나 오히려 증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향으로 볼 때 금년 9~10월에 일부 지방에서 발생된 돼지 질병으로 비육돈의 피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 하더라도 9월 이후 전 체두수의 증가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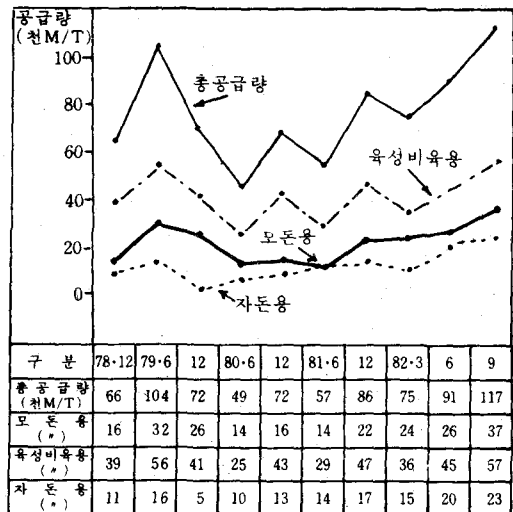
■ 수급 및 가격전망

금년 중반기 이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양돈불황은 양축가의 자율적인 사육두수 조절에 힘입어 무난히 넘겼다고 볼 수 있으나 5월을 정점으로 돼지가격은 계속해서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후 12월까지에는 돼지고기의 겨울철

수요증가에 힘입어 가격은 9월수준의 보합세가 예상되며, 내년 1월이후 5월까지의 계절적 수요가 안정적인데 반하여 금년 9~10월경 돼지

○양돈 배합사료 공급상황



질병으로 인하여 주로 2~3개월령의 폐지가 일부 폐사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1~3월에는 공급량이 다소 영향을 미쳐 가격은 약간 보합세가 예상되지만 근본적으로 모돈수가 감소되지 않는 한 4월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하락세를 전망하는 이유는, 금년 9월 자돈사료의 공급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 58.0%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3년초 이후의 출하돈 과잉을 뒷받침해 주고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수요면에서 보더라도 내년 6월 이후에는 비수요기로 접어든 데다가 금년 연말 연초에 분만될 자돈의 집중출하가 예상됨에 따라 가격은 생산비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에도 모든 양돈가들이 나만의 이익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개인적 생각을 버리고 다같이 합심하여 금후에 예상되는 불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 우

■ 사육 전망

79년 6월 이후 작년 연말까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던 한우 사육두수는 81년 8월 최고기 가격 상승에 힘입어 그동안 침체되었던 번식우 사육농가의 사육 의욕을 크게 고취시킨 결과가 되어 82. 6월 한우 두수는 1,431천두로 작년 동기대비 9.1%의 증가를 나타냈다.

이러한 사육의욕은 연말과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82. 12월에는 1,450천두, 83. 6월에는 1,550천두까지 사육 두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육두수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성빈우 두수만을 보더라도 82. 6월 현재 639천두로 전년 동기대비 12.9%의 높은 증가

를 나타냈는데 이와같은 현상은 앞으로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밝은 전망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한우두수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로서는 그동안 수입육의 적량 방출과 쇠고기 가격안정으로 소 도축두수가 현저하게 감소됐는데 금년 상반기(1~6월)의 도출두수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대비 28.6%나 감소됐을 뿐만 아니라 황소가격도 생산비수준 이상에서 계속 유지되어 옴으로써 농민의 소 사육 의욕을 증대시켜 온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산지의 초지개발 시책을 적극 전개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도 송아지의 수입을 계속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수급 및 가격전망

한우가격은 금년 연초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는 79년 6월이후 계속적인 두수감소로 인하여 절대두수가 부족한데다 사육의욕이 증대되어 도축용 생우의 출하두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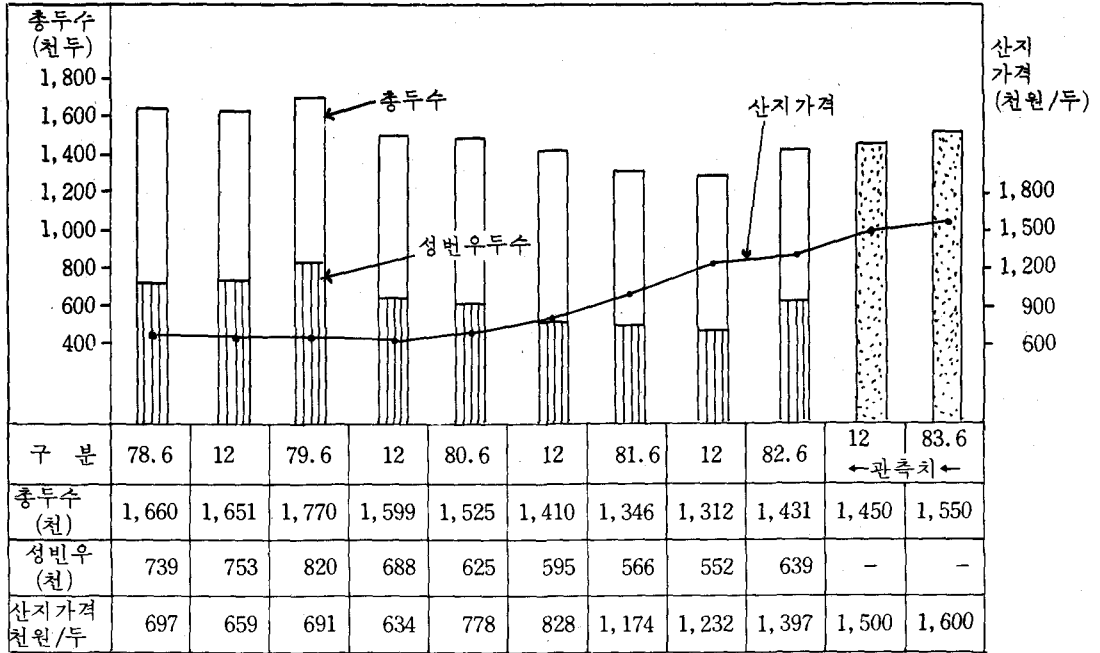
금년들어 소 도축동향을 보면 표에서와 같이 상반기(1~6월)에는 월평균 도축두수가 작년 동기대비 28.6%나 감소를 보였는데, 3/4분기(7~8월)에도 월평균 25.4%의 감소추세를 지속함으로써 이것이 곧 한우가격을 상승세로 유지해온 이유로 분석되었다.

이와같은 동향을 기초로 금후 한우가격을 전망해 보면 11~12월에는 김장 및 월동준비 등가 예비지출 증가에 따른 우육의 수요가 감소되는 한편 연말 부채정리를 위하여 산지 출하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아 10월 가격수준에 비하여 약 보합세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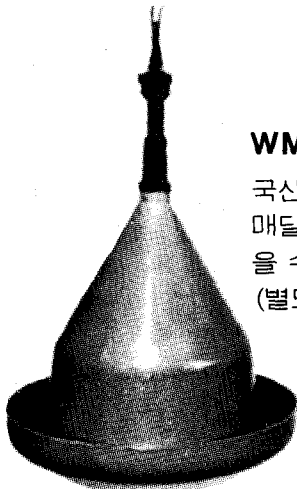
그러나 내년에는 봄철부터 가격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구정기에 수요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봄철들어 산야초를 이용하고 농사철에 대비하고자 소구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등 계절적인 가격상승기에 접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농사철인 5~6월 이후에는 산지출하량이 증대되어 가격은 약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 사육두수와 가격 전망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고장없는 급수기 MONOF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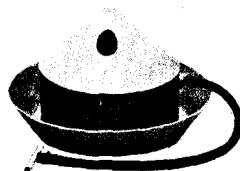
WM-5

국산보다 20% 크며
매달거나 바닥에 놓
을 수 있는 양용.
(별도 장치 불요)



케이지용 닢플

프라스틱 파이프에
붙여 케이지 2 칸에
한개씩 설치하며 청
소가 필요없다.



Mini 80

초생주 육추에 최적,
직가드내에 설치 가
능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 1886